

# 나눔과 베품으로 다진 우정

## 상록수 과자회 & 맥과 벗



▲김남일 회장(엠마 신금호점 공장장)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신길동에 위치한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에서는 '소년소녀 가장 돕기 세미나'라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상록수 과자회'와 '맥과 벗' 두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일씨의 주관 아래 치뤄졌으며 회원들간의 결속을 더욱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로 다 바쁜 와중이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지요. 행사 준비를 하느라 몸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뿌듯함으로 벅차 오릅니다. 이 세미나를 계기로 제품 기술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세미나를 주관한 김남일(엠마 신금호점 공장장) 회장은 이 행사가 단순히 제품 세미나가 아닌 이웃과의 정을 나누는 장임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 7~8회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의 하나로 이날의 모임은 여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빡빡한 일정이지만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회원들의 의지가 돋보이는 하루였다.

### 알짜배기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임

상록수 과자회는 91년 결성된 이후 10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해 왔다. 처음 모임이 만들어 졌을 당시에는 같은 연배끼리 친목을 목적으로 각 제과점의 공장장으로 구성됐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후배들도 받아들여 7년 전에 입회한 회원을 2기로, 5년 전에 가입한 회원은 3기로 창단 멤버인 1기와 구분했다. 현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30명의 회원을 세 기수로 구분했던 것

을 98년 통합해 회원들의 단결과 융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회장의 임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새로운 일꾼에 의한 의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상록수 과자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상호(뽕곰터 화정점 공장장)씨는 “모임을 앞두고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들에게 나누어 줄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쌓이는 자료를 보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맥과 벗은 98년 6월에 만들어진 모임으로 현 공장장들의 안일한 일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 공동체도 회원 모두 공장장 출신으로 처음에는 18명으로 시작해 작년에 영입한 신규 회원을 합쳐 32명으로 늘어났다. 흔히 모임이라 하면 친목 도모와 유흥으로 일관되기 쉽지만 ‘맥과 벗’의 경우는 철저히 제품과 기술을 위해 결성됐기 때문에 술 자리는 지양한다는 것이 총무인 문경찬(임선열과자점 공장장)씨의 얘기다.

“회원 32명 모두 알짜배기들만 모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술도 마시지 않고 기술 개발에만 혼신을 다하니까요. 21세기에 제과인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모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불우이웃돕기도 활발히 전개

이날 모임과 더불어 개최된 소년소녀 가장 돕기 세미나의 수익금은 다음날 서울 시청에서 추천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소년 가장 2명에게 전달됐다.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행사 수익금은 직접 수혜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신월 복지관 관계자에게 맡겨졌다.

“언젠가 TV를 시청하다가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회원들도 새 천년에는 기술 세미나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도 앞장서자는 의견이 많아 서울 시청에 대상자를 의뢰했습니다.”

상록수 과자회와 맥과 벗은 올해에도 연간 계획에 의한 세미나를 운영하고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계속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상록수 과자회는 추구대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단결을 다지며 맥과 벗도 서면 세미나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두 모임은 올해 국내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일본 연수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수 경비는 그동안 착실하게 적립한 회비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회원들의 성실함과 총무의 재정 운영이 알뜰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베이커리업계에는 많은 모임이 있지만 친목 도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상록수 과자회와 맥과 벗처럼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곳도 더러 있다. 앞으로도 두 모임이 회원들간의 끈끈한 결속력과 우애로 나날이 새로워지길 기대한다.



▲ 지난 3월 23일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에서 열린 소년소녀 가장 돕기 세미나.



▲ 세미나의 성금은 소년소녀 가정을 위해 쓰인다.

〈글/ 정한상 jeong@mbakery.co.kr〉